

'생쥐 새우깡' 바뀌주면 보상 끝?

정모(여·37)씨는 지난 2월 광주 시 서구의 한 마트에서 구입한 T사의 초코바를 씹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초코바가 너무 불경한데다 기를 뱉새까지 났던 것이다. 정씨는 곧바로 소비자보호센터를 찾았지만 포장이 뜯어진대다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쉽지않아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목포에 사는 홍도(46)씨는 지난 1월께 집 근처 한 마트에서 구입한 N사의 육포를 먹은 직후 심한 복통에 시달렸다. 2주간 병원 신세를 지야했던 홍씨는 제조업체 관계자에게 항의했지만 '육포가 복통을 일으켰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결국 이씨는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육포와 복통의 개연성에 대해 증명하지 못해 보상 같은 막막하다.

'국민 과자' 농심 새우깡에서 생

광주·전남 작년 식품 신고 350건 소비자 보호 규정 미약 보상 막막 처벌 솜방망이...단속 범규도 허술

취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식품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과 소비자 보호규정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YMCA·YWCA 소비자상담실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 식품으로 인한 신고건수는 350여건에 달했고, 올해 3월 말까지의 신고건수도 34건에 이른다.

지난해 식품 관련 신고를 보면 새우깡의 경우처럼 벌레·비닐·쇠가루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55건(16%)이나 됐다.

이처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이물질 함유에 대해 '기준과 규격위반'을 명시한 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물론 문제를 일으킨 업체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또 포장이 된 식품의 경우는 소비자가 포장을 뜯은 후에 이물질이 생겼는지, 포장을 뜯기 전에 이물질이 들어있었는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이를 증명하

라도 업체에서 동종의 제품을 몇 개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입을 막기 위해 보상을 건네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에도 먹거리 관련 위생·안전 사고가 빈번했지만 제품 회수만 했을 뿐 적극적인 단속과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농약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검출결과를 강화했다고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데이터나 방지대책을 내놓은 기업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광주YMCA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식품의 분장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규정에도 같은 제품으로 반환 및 환불만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식품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현주기자 ahj@kwangju.co.kr



도공 호남본부 신사옥 입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심찬섭)는 18일 담양군 대전면 신사옥에서 백석봉 한국도로공사 부사장과 이정섭 담양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입주식을 가졌다.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북광주요금소 인근에 지어진 신사옥은 연면적 9천178㎡ 규모에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북광주요금소 인근에 담양지사와 함께 들어섰으며, 기존 구사옥은 광주지사로 계속 사용된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보고 싶은 책 얘기 하세요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관장 홍성률·이하 학생회관)이 도서관 이용자가 보고싶은 책을 볼 수 있도록 한 '희망도서 신청제도'를 3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학생회관 측은 지금까지 도서관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이 비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받아 월 1회 일괄 구입해왔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월 2회로 희망도서 구입 횟수를 늘리겠다는 것.

광주학생회관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제 확대

학생회관 관계자는 "월 2건 안팎이 접수되는 실정"이라며 "이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원하는 책을 도서관에서 대출하고 싶은 사람은 학생회관 도서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student.gen.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판타지, 수험서, 문제집 등은 신청도서 항목에서 제외된다. 문의 062-221-5570. /정성필기자 camus@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풍성한 공연

4월~10월 매월 3회 비보이·국악·가요 무대

광주시청 야외 음악당에서 풍성한 상설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는 "젊은 예술인들에게 공연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야외 음악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0여 차례 상설공연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매달 테마를 선정해 모두 7개 주제로 매월 3회(첫째주 토요일, 셋째·넷째주 화요일) 공연을 개최한다.

오는 4월에는 '일상에서 세계를 만나다'를 주제로 인디밴드와 비보이, 사물놀이, 국악공연이 잇따라 무대에

올려진다. 공연에는 한국연예협회, 전문문화 연구회 일주, 창작국악실내악대 도드리가 참가, 한마음 페스티벌, 전통 타악공연, 퓨전 국악 공연을 펼친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화합'을 주제로 70, 80년대 가요와 요술승 등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안수영 광주시 회계과장은 "야외 음악당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야외음악당 상설공연 일정

공연일자	공연시간	공연명	단체(개인명)	공연문의
4. 5(토)	오후 7시	한마음 페스티벌	사한국연예협회광주시지회	062-352-1080
4. 15(화)	"일주" 전통타악공연	전통문화연구회 '일주'	전통문화연구회 '일주'	062-676-3844
4. 22(화)	도드리와 함께하는 국악 퓨전여행	창작국악실내악단 '도드리'	창작국악실내악단 '도드리'	062-266-5889
5. 3(토)	양말매미 건물숲에서 노래하다	새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새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062-228-1156
5. 13(화)	빛고을 문화예술봉사단 사랑의 공연	새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	새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	062-434-5060
5. 20(화)	장승일과 이야기기 있는 이색음악회	장승일	장승일	062-365-8881
6. 7(화)	오후 7시30분 광장음악회	문화지원이 '광장'	문화지원이 '광장'	062-655-3522
6. 17(화)	살아있는 국악! 함께하는 국악!	새내벗소리 민족예술단	새내벗소리 민족예술단	062-261-4002
6. 24(화)	그림전시대페스티벌	사한국연예협회광주시지회	사한국연예협회광주시지회	062-352-1080
7. 5(토)	시민을 위한 한어울림의 콘서트	크로스오버인상팀 '허브'	크로스오버인상팀 '허브'	062-675-4027
7. 15(화)	국악의 향기	새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새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062-228-1156
7. 22(화)	타목 김중홍의 장승포포의의 하회별신굿 체험 장승일	장승일	장승일	062-365-8881
8. 2(토)	칠월칠석맞이 전통연희한마당	새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새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062-228-1156
8. 12(화)	청소년 락 페스티벌	사한국연예협회광주시지회	사한국연예협회광주시지회	062-352-1080
8. 19(화)	인디밴드 '광장 나들이'	새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새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062-228-1156
9. 6(토)	A Trio 재즈콘서트	A Trio	A Trio	062-456-3781
9. 16(화)	장승일과 오들친구들의 오들의 향연	장승일	장승일	062-365-8881
9. 23(화)	오후 7시 'Shade Of Blue' 퓨전 콘서트	SHADE OF BLUE	SHADE OF BLUE	062-681-6071
10. 4(토)	국악대중화를 위한 관현악 '신명'	빛고을국악관현악단	빛고을국악관현악단	062-385-0815
10. 14(화)	하늘명 2008 광명비트	하늘명 풍물놀이	하늘명 풍물놀이	062-383-9725

BIS 도입 1년만에 전면 교체

<시내버스 도착 안내시스템>

광주시가 갖은 버스도착 시간 오류로 속한 민원의 대상이 된 버스도착 안내시스템(BIS)의 전면 재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재정비를 통해 정확할 시스템도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어 철저한 검증 등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시는 18일 "지난해 12월부터 시내버스 일부 차량에서 무선통신 장애가 발생해 도착 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됨에 따라 시내버스 통신 모뎀을 전면교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BIS는 시내버스에 부착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정류장에 설치한 안내 단말기로 노선 정보와 도착 시각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시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20여억 규모의 민자 사업으로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도입 초기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정류장 안내 단말기에 도착 시각이 잘못 표시되는 사례가 빈발해 시민 불만이 가중돼 왔다.

시도 자체조사한 결과 "알 정류장에서"출발 대기 중"이거나 "10분 뒤

도착 예정"이라고 표시된 노선 버스가 곧바로 도착하는 등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인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정밀 조사를 벌여 일부 시내버스에 부착된 GPS가 불량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하고 모든 시내버스에 설치된 GPS를 4월 중순 교체하도록 민자 사업자에게 주문했다.

그러나 통신모뎀의 전면 교체에도 여전히 내구성 보완 등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교체 후에도 또다시 장애발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상태다. /윤영기기자 penfoot@

결함 발생 시민 불편 가중 버스 900대 모뎀 바꾸기로

현재 광주시에는 87개 노선에서 900대 가량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며, 시내 약 2천300개 정류장 가운데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200곳에 버스도착 안내 단말기가 설치돼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시내버스에 설치된 GPS의 통신모뎀 300개를 교체했으나 일부 차량에서 장애가 계속 발생, 시내버스 900대에 대한 전면 통신모뎀 교체를 결정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중으로 통신 모뎀 교체를 완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대구·울산 고교 진학부장 세미나

광주와 대구, 울산 등 3개 광역시 고교 진학부장이 지방교육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광주·대구·울산진학지도협의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 서강정보대학 서정홀에서 '새 정부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지방교육의 활로 찾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1부에서는 김광현(대성여고 진학부장) 광주진학지도협의회장을 비롯

한 유철환(대구 계성고 진학부장), 장건(울산 화성여고 진학부장) 등 각 지역 진학지도협의회장이 지역별 '대입 진학지도의 특징과 대입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는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한 대입제도의 바람직한 방향과 3대 광역시 진학지도 연대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북구 공직자 자원봉사 동아리 활성화

광주시 북구는 "자원봉사 참여운동 확산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동아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활동 중인 동아리는 '바른 손봉사' '한우리' '자원봉사 길 찾기' '나사모'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19단체로 구성된 262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이들 단체

는 ▲독거노인·장애인세대 방문 말벗 되어주기 ▲취약계층 후원(매월 15만원) ▲근린공원 청소 ▲독거노인 위문 공연 ▲장애인 가정 가사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 같은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북구는 수시로 19개 동아리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자원봉사 기본수칙, 기본 방향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장수온돌침대

최신 2008년 3월 19일 수요일

시내버스 도착 안내시스템

시립이 388,000원

빅토리 352,000원

빅서리 352,000원

하이파라화생용가구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62-252-3001~2

모디쉬갤러리

시립이 388,000원

빅토리 352,000원

빅서리 352,000원

하이파라화생용가구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62-252-3001~2